

# 책에서 얻은 과실 사회로 되돌린다

금성·박영사·범우사·영진출판사 등 각종 장학회 활동 활발

‘책에서 얻은 이윤은 사회로 되돌려준다.’ 몇몇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와 재단의 모토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출판계에도 기업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현재 금성출판사·박영사·범우사·영진출판사·일조각·학원사 등에서 운영하는 장학회는 미래의 인재육성과 출판의 저변확대 그리고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 미래사회의 주역 육성

현재 출판사 장학회와 재단은 대부분 숨은 인재를 발굴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출판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장학회는 학원사에서 운영하는 (재)학원장학재단(이사장 김영수, 6·25동란의 와중인 1952년 피난지 대구에서 중학생을 위한 교양 월간지 《학원》 창간에 맞춰 설립됐다.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급학교 진학이 불가능한 남·녀 중학생을 돕기 위한 취지였다.

장학생은 전국의 남녀 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가정이 극빈한 학생에 한해 학교장의 추천과 서류, 필기,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고등학교 1학년부부터 분기별로 연4회 분할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현재 서울과학교 3학년 조동원군 등 22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학원장학회를 통해 배출된 인원은 600여명. 이들은 ‘밀알회’를 구성해 따로 밀알장학회(회장 김완섭)를 꾸리고 있다.

일조각과 ‘월봉 한기약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안춘영)는 월봉장학회(회장 장운)와 월봉저작상을 통해 장학사업과 우수 학술도서 발굴에 힘쓰고 있다. 월봉저작상은 언론계와 교육계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월봉 한기약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제정됐다. 75년부터 민족정기와 문화의식을 고양하는 내용의 저작물을 정선해 해마다 1회 1인에게 상패와 메달 및 부상 200만원을 시상한다.

지금까지 신용하의 《독립협회연구》(일조각), 정문길의 《소의론 연구》(문화과지성사), 박명립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나남출판) 등의 저작에 저작상을 수여했다. 지난해



영진출판사의 '컴퓨터 꿈나무 장학회'가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면(위)과 (재)금성출판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독서대상 시상식.

에는 덕성여대 한상권 교수의 《조선 후기 사회와 소면제도—상언·격쟁연구》가 영예를 안았다. 1982년부터는 월봉장학회를 결성해 원주시 군내 남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에게 1인당 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426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출판전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회도 있다. 범우사에서 운영하는 범우출판장학회(이사장 한승현)가 유일한 사례. 1991년 출판계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억원의 기금을 모아 설립됐다. 출판학과 및 인접학문에서 출판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전문대학, 정규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 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나해에는 경희대를 비롯한 15개교 16명에게 1천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총 108명에 이르는 장학생들은 출판학과 교수, 출판사 임직원, 출판유통 전문가 등 출판계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범우출판장학동문회 모임을 결성해 친목도모와 함께 후배 장학회동문도 격려한다. 앞으로 기금을 더 확충해 재단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학술진흥과 독서인구 확대에도 기여

몇몇 출판사들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결성해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학술진흥과 독서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도 한다. 1993년 설립된 (재)박영문화재단(이사장 안중만)은 12억의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장학사업과 학술단체 지원사업에 힘쓴다. 중학교 이상의 재학생 가운데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 1년 동안 1인당 등록금(수업료와 기성회비 등)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199명이 장학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우수 학술단체와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연변과학기술대학, 통일연수원, 전북 김제축산초등학교 등 11개의 학술단체와 학교에 약 5천만원 상당의 학술도서, 교재,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해왔다. 앞으로 기본재산을 증액해 수혜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1993년에 설립된 (재)금성출판문화재단(이사장 김낙준)은 장학사업, 독서대상, MBC창작동화 대상 등 다양한 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1세기 국가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약

80명을 선발해 대학생 100만원, 중고생 30만원씩 약 3천만원을 지급한다.

독서대상은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문화방송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94년부터 해마다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한 약 150명의 학생, 교사들에게 약 1억1천만원의 상금과 부상을 시상하고 있다.

한편 21세기 정보화사회의 밑거름이 될 인재를 발굴, 지원하는 장학회도 설립되고 있다. 올해 1월 출발한 영진출판사의 '컴퓨터 꿈나무 장학회'는 디지털시대를 견인할 컴퓨터 꿈나무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창의적 사고를 가로막는 현재의 기능전달식 컴퓨터교육을 지양하고, 불우한 조건 때문에 정보화에서 소외된 차세대를 위해 컴퓨터도서와 각종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

현재 1억원 상당의 영진출판사 컴퓨터 도서와 《강남길의 TV보다 쉬운 컴퓨터》를 펴낸 텔런트 강남길씨가 기증한 1천만원을 기본출자로 출발했다. 연 1백만부 판매가 예상되는 영진출판사의 《할 수 있다!》 시리즈의 판매부수 1권당 100원씩 적립하고 그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서점, 컴퓨터 서적 저자, 관련 업체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장학생 지원희망자 접수와 추천은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받고 있다.

올해 제1차 컴퓨터 장학생으로 최연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한 서무성군(8살)과 정다빈군(10살)을 선정해 컴퓨터 교재와 장학금 30만원을 수여했다. 사회복지시설인 영락보린원과 혜심원에도 컴퓨터 도서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1차 지원하고 후원을 계속한다. 앞으로 장학회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투명한 운영·관리를 지향하고 장기적으로 장학재단도 발족시킬 계획이다.

각 출판사들의 장학회는 출판의 지식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측면까지 아울러왔다는 점에서 출판계의 저력을 보여준다.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인 장학사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궁극적으로 독서인구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해 운영기금을 확대하는 것이 이들 장학회의 공통적인 과제다.

— 박천홍 기자